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趙大濟
발행처: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비스텔 4층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인쇄처:釜山日報社
在別冊發售-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복빌딩 504호
T:(02)783-0071~2 F:(02)783-0073

본부 올해 첫 이사회... 하반기 사업 확정 27대 집행부 본격 가동



7월1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린 본부 올해 첫 이사회 장면.

본부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가 7월 14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회장단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회를 겸해 열렸다.
조대제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인사말에 앞서 정소영 직전회장(6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권오현고문 등 11명에게 고문추대장을, 문국동문(8회)등 59명에게 부회장 선임장을, 김태우동문(27회)등 3명에게 감사선임장을, 김정곤동문(8회) 등 208명에게 이사선임장을 각각 수여하고 제26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6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으로 조직활성화가

고문 11명 추대

부회장·감사·이사
선임장 수여

기별대항 야구대회
9월23~10월21일

용마의 밤 12월 15일

제3회 골프대회
10월 중 라온딩

촉진될 것"이며 "제1회 기별대항 등산대회의 성공이 우리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최득호사무국장(11회)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회장인사·김영삼 전 대통령 축전소개·권고문 격려사·선임장 수여·주요의제 의결·송두호고

문(3회) 축배제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사회는 6월11일 성료된 본부동창회 숙원사업의 하나인 제1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경과보고에 이어 정소영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고 △9월5일 기별야구대표자 회의 △9월23~10월21일 기별야구대회 △10월 중 제3회 용마골프대회 △11월10일 2차 이사회 △12월15일 2000년 용마의 밤 행사 등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박종용동문(25회)은 국회의원동문을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용마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잊지 않고 있으며, 축하회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용마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뢰받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 중 박희태(11회) 김형오동문(20회)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으나 김해공항의 길은 안개로 회항하는 바람에 불참하게 됐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회의 참석을 약속했으나 대정부결의 마지막 날로 '여야의원 전원 국회대기'령에 따라 본의 아닌 불참이 됐다.

6월11일 열린 제1회 동창회장기 정팔 기별대항 등산대회에서 제20회동기회가 영광의 첫 우승을 쟁취했다.
또 준우승은 제27회, 3위는 제24회, 최다참가상은 25명이 참가한 제13회, 감투상은 제15회, 환경보호상은 제32회가 각각 차지했다. 그리고 리더상은 표문배동문(20회)이 받았다.

20회 감격의 첫우승

제1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대성황"

준우승 27회·3위 24회·최다참가상 13회
감투상 15회·환경보호상 32회 차지

이날 오후 4시40분 경남고 체육관 광장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승학산~구덕산~꽃동네~엄광산~구봉산~경남고를 완주한 2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피로를 잊은 채 서로를 격려했다.

표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숙원의 기별대항 등산대회가 각 동기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로 실현되었다"고 말한 후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동창회 발전의 큰 동력으로 직결될 수 있게끔 각 동기회에서 배전의 성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동창회가 주최하고 용마산악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의 우승기 우

리더상 표문배(20회)

조대제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



제1회 기별대항 등산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제20회 동기회 선수들이 조대제본부 회장(앞 오른쪽)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승컵 준우승컵 3위컵, 각종 부상, 참석자 기념품(등산용 손수건)등은 모두 본부에서 마련했다.

250여 동문 승학산 올라
구덕산 안부서 대회돌입

이날 대회는 오전 9시4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학훈단운동장에서 각 동기회 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시작했다. 출정식은 한동대 용마산악회장(9

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의 대회사와 조본부장의 격려사, 오기현 산행대장의 대회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일행은 오전 10시20분 선배기부터 승학산을 오르기 시작, 40분 후 승학산 정상에 올랐으며 이곳에서 1시간(10분 휴식 포함)만에 구덕산 안부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다.

각 동기회 7명씩 출전

산행대회는 오후 1시50분 구덕산

안부 출발로 시작했다. 각 동기회 대표 선수 7명씩이 출전, 선배기 순으로 1분 간격으로 출발했고 꽃동네~엄광산~구봉산을 거쳐~경남고 체육관 앞 광장에 골인했다.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대회코스 중간중간에 배치돼 진행을 유도해 행사가 잘 이뤄졌다.

오후 4시40분 시상식에 이어 일행은 5시부터 국산기념관 위쪽 숲속에서 열린 뒤풀이 단합회(뷔페)를 즐겼고 주변청소를 끝으로 해산했다.



등산 레저용품 전문점

자연이 나를 부를 때... 그 곳에는 Coleman

남진현(제19회)
강국상(제19회)
지용섭(제26회)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2
TEL : 051)248-2222
FAX : 051)248-2294



Coleman은 (주)신양 대표 김영복(제19회)동문이 독점수입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등산 캠핑용품 브랜드입니다. (서울매장 압구정동 02-541-0062)

용마춘추



조돈만 제14회·연론인

제14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번 기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꼭 친구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 행사 며칠 전부터 마음은 벌써 모교를 향해 달렸다. '마지막'이란 단어에 부닥치자 40년 세월 동안 나는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당혹감을 안고 모교 정문을 들어서니 옛친구들이 눈에 띄었다. "야, 너 옛날 그대로네!", "너도 안 변했어!"

옛친구도 거짓말을 했고 나도 거짓

40년의 긴 여로... 다시 '고향'에

말을 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숭을 떨다 우리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다. 이 웃음도 꿈 같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웃음 그대로였다. 옛친구들의 얼굴을 거울인양 서로 들여다보는 순간은 순수했다.

신록으로 곱게 물든 모교는 어머니 품처럼 늘 넉넉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기만 했다. 이 넉넉함, 포근함, 아늑함, 이 맛을 새롭게 느끼려고 우리는 홈커밍축제를 여는가 보다. 실로 40년이란 삶의 쩌들린 길고 긴 여정의 피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행사장에서 옛스승님들을 뵈오니 다시 활짝 웃구치는 그리움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또 다른 감회가 새로웠다. 스승님들은 마치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용케도 잘 버티고 서서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기품 넘치는 노거수(老巨樹)들 같았다.

노수덕 회장의 치분한 축사에 이어 답례로 나오신 김계곤 선생님의 구수한 입담은 구덕산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청산유수. 문득 그때 그 시절

의 국어시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2부에서 여러분의 재롱을 한번 보고싶다"고 하시어 우리는 또 한번 탕 웃어제졌다. 당신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재롱, 이 재롱이란 표현은 얼마나 스승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말씀인가.

“올커밍데이 축제는 우리를 다시 맺어주는 질기고도 질긴 끈니를 슬한 욕망을 버리고 뜨거운 마음 보듬어”

롯데호텔 2부 행사장은 그동안 먹고 산다고 잠시 잊었던 우정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다들 술이 한잔 들어가니 욕도 잘치게 나오고 진한 농담도 나오고 서로 흥금도 털어 놓았다. 우리도 어느새 혼자 있자니 외롭고, 모여야 즐겁고 웃음이 나오는 공감 후보생들이 아닌가. 무슨 놈의 공식과 위선이 필요하나. 친구는 역시 옛친구가 최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서 온 친구, 서울서 온 친구, 강원도 충청도에서 온 친구들, 성의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사장을 두루 살펴도 보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소식을 물었다. "그에는 왜 안 보이지?", "너 아직 몰랐니? 그 친구 갔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술을 연속으로 들이키고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을 속으로 그리다가 문득 "내가 살아생전 몇 사람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다가 저 세상으로 갈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는 새롭게 사람을 사귀려고 시간을 보내느니 이미 이는 동기라도 자주 만나 진정한 우정을 다지고 싶다.

기념품을 달랑 들고 연회장을 나올 때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아이, 2차로 한잔 더 하자"는 말이 들려올 듯도 한데 너무나 조용해서 섭섭했다. 역시 술을 겁내는 나이는 못 속이는가 보다, 10년 뒤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한다. 그 날을 위해서라도 다들 건강하기를 빈다.

구창희(12회) 전 3군사령관 동창회 사상 첫 4성장군
김홍래(12회) 전 공군참모총장 두번째로 영광 안아



육군 3군사령관을 역임한 구창희동문(12회·위)이 동창회 사상 첫 4성장군이 며,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홍래동문(12회·아래)이 두번째다.

구동문은 현역 당시 작전과 정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다. 원칙주의자이나 사병

제일주의에 합리주의를 중시한다. 평소 아침 저녁마다 15층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내릴 정도로 체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김동문은 공사 10기로 훈련비행단장·작전부사령관·본부인사 및 정보참모부장·참모차장·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지냈다.

소탈하고 온화한 김동문은 현역 당시 살림꾼으로 평평한 안팎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고 국방부 정보본부장 재직시는 한미정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4월25일 육군대장으로 진급, 육군 1군사령관에 취임한 김관규동문(16회)은 동창회 사상 세번째 4성장군이며 첫 1군사령관이다.

“영진을 축하합니다”

- (대법원)▷ 박영무(15회)=행정법원장.
- (법무부)▷ 김수민(26회)=서울지검 형사5부장 ▷ 안종택(27회)=서울고검 검사 ▷ 김인호(28회)=서울고검 검사 ▷ 옥준원(28회)=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 (시의회)▷ 조길우(16회)=부산시의회 부의장.
- (국세청)▷ 황수길(17회)=부산진세무서장 ▷ 이부식(23회)=서울지방청 조사 3과장.
- (경찰청)▷ 오경중(19회)=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김석구(19회)=동 정보과장 ▷ 성경출(25회)=울산 중부경찰서장.
- (부산시)▷ 정영석(24회)=해운대구청 부구청장.
- (교육부)▷ 김남일(25회)=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 부의장 당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안대로·센텀시티·동서부산간 개발 등 부산시의 중점 현안사업들을 가시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대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우동문(16회·사진)은 제3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위해 7월 3일 실시한 의장단 선거에서 제1부 의장에 선출된 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조동문은 이날 부산시의회 제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장선

거에서 이같이 영광을 안았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동문은 부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장 겸 경제대책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 왔다.

매사에 능동적이고 활동적인데다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성격 때문에 주변으로부터의 신뢰도가 높다. 시의회 활동에서는 논리적이며 공부하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시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 발휘에 철저해 '매서운 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다년간 본부동창회 부회장과 동기기 회장 등을 역임한 조동문은 동창회와 모교에 관한 한 자신의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어느 누구보다 한발 앞서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의 주변에 선후배 동문들이 숲처럼 둘러서 있어서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며,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문은 용마가족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제18회 회보 7호 발행

제18회동기기 회보 '18번지(6통4반)친구들' 제7호가 5월20일자로 발행됐다.

이번 회보에는 '김종철 신임회장 살림살이'와 '새 집행부'를 비롯해 '정형근·허태열동문 국회의원 당선' '자녀 결혼', '부음' '정보사회 칼럼', '친구들 근황' '핸드폰 연락망' 등 여러가지 동기기 소식을 실고 있다.

김진철(25회)

자재류 등 국내 첫 B2B 진출

김진철동문(25회·다이에스아이 대표)은 국내 처음으로 200여종의 포장기계 및 자재류분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김동문은 코스닥에 등록된 (주)다이에스아이(경남 양산시 교동)와 그간 10년이상 거래를 해왔던 국내외 오프라인쪽 150여개 대리점 및 100여개 딜러망을 근간으로 온라인 조직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김동문은 "미국의 ITW 등 세계적 우수마케팅 보유 업체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중(19회)

민생치안 공로 대통령표창

오경중동문(19회·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사진)은 부산진경찰서장 재임중이던 5월31일 경찰청이 실시한 민생치안 활동 평가에서 전국 6대도시 71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진경찰서는 10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아 영광을 안았다.

오동문은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필렬(19회)

삼성라이온스 야구단 사장

신필렬동문(19회·사진)은 삼성의료원 행정부원장(상무이사급) 재임 중 7월 18일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경산 볼파크 대강당서 열린 취임식에는 김홍희감독(28회)과 코칭스태프, 2군 선수들, 1군 선수대표 김기태(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동문은 1972년 삼성에 입사한 이래 삼성물산에서 주로 근무했고, 지난 95년

1월부터 삼성의료원 행정부원장을 맡아왔다.

이인백(21회)

해운 발전 대통령표창

이인백동문(21회·범양상선 상무이사·사진)은 5월30일 제5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장을 받았다.

이동문은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 후 한국의 해운업 발전을 위해 오대양을 넘나들었다.

새 천년 제12회동기기 이사 명단

(고문) 姜朱憲 대동백지(주) 대표이사 金結基 변호사 金光一 변호사 權延相 변호사 林保國 (주)은성사 대표이사 安永圭 마산노안병원 병원장 趙哲元 법무사	劉大植 대동백지(주) 전무이사 (총무부회장) 李昌大 대장상사대표 (감사) 吳世正 전 연세구상부 부구청장	(감사) 林成鎔 서울대 치과병원장	(부·동·래·금정·양산) 회장 金富煥·총무 李春相 (제12회 정문회) 회장 金容鎔·총무 姜昌秀 (제12회 경수회) 회장 宋世文·총무 吳壽奉 (제12회 용마테니스회) 회장 張東燮·총무 鄭燦植 (제12회 용마골프회) 회장 姜朱憲·부회장 王濬均·총무 鄭燦植 (제12회 용마기우회) 회장 金結基·부회장 金善一·총무 鄭燦泰	金石用 대동중학교 교장 金善一 김선일치과의원 원장 金成植 부영금속공업사 대표 金聖贊 경남고등학교 교장 金英鎭 효림골프연습장 대표 金鎭鎭 부산정보대학 교수 金容鎔 반여중학교 교장 金鎭鎭 동아대학병원내과과장·심장병센터 실장 金鎭錫 명지유주소 대표 金正賢 청운기업사 대표 金春光 전 부산광역시 농정과장 金鎭燮 백병원 신부인과 과장·의대 교수 文正秀 전 부산광역시 시장 林鎭鎭 전 MBC 국장 徐泰相 규양동운 대표 宋世文 다대중학교 교장 安相植 대동약국 대표	嚴泰燮 동아대학교 자연대학 교수 王桂濤 전주코알리우학·여행사 회장 王秉均 대양노트공업사 대표 李守永 법무사 林成奎 영남기업사 대표 林正明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田炳在 전 삼양동상(주) 사장 鄭鎭守 전 8학군 이사장 鄭燦植 동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鄭鎭錫 남성초등학교 교장 鄭鎭中 제일간호학원 원장 千九星 락기화재보험 신라총괄대리점 대표 崔錫煥 부천물산 대표 卓惠政 덕해정산부인과의원 원장 河一基 브나래여자고등학교 교장 河一民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韓壽鎭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장 洪龍河 홍용하산부인과의원장
---	---	-----------------------	--	--	--

본부 '용마산악회' 출범

초대회장 한동대(9회) 선임·집행부 구성



결집된 용마가족의 역량을 충전시킬 속원의 용마산악회가 출범했다. 용마산악회는 앞으로 각 동기회별 동문-가족들의 정기적 합동산행을 주관함으로써 동창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화합과 결속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는 6월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서울실링탕'에서 용마산악회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 제정 △집행부 구성 및 고문 추대 등 △제1회 기별대항 산행대회 개최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켰다.

이날 각 동기회 산악회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회의는 초대 용마산악회 회장에 한동대동문(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사진)을 선임했다.

또 고문단으로 김근준 권오현(이상 1회) 김영삼 송두호(이상 3회) 정상진(4회) 우명수 주범국(이상 5회) 정소영 본부고문(6회)을 추대했다.

특히 용마산악회 창립을 기념하는 동창회장기 쟁탈 제1회 기별대항 동산대회는 6월11일 승학산~엄광산~경남고 코스에서 열 것을 의결했다. 이날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회장=한동대
- △부회장=제병민(13회) 진성태(14회) 정준수(15회) 하영수(17회) 이창흠(19회) 김대원(20회) 오거돈(21회)
- △감사=이범렬(17회) 이용길(32회)
- △기획이사 겸 산행대장=오기현(20회)
- △총무이사=박종규(31회)
- △산행부대장=안형수(24회) 남기태(31회).



제6회동기회 동문들이 백암온천에서 आय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철순 앞둔 6회 39명 백암온천 आय회 "일쑤"

제6회동기회 봄들놀이가 5월21일 경북 울진 백암온천에서 39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경택회장 주재로 열렸다.

철순을 바라보는 일행은 온 산에 아카시아꽃 향기가 가득하고 보리밭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지나 푸른 동해바다를 옆에 끼고 있는 백암온천에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하는

기분을 냈다.

특히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평해에 사는 안승우동문 덕택에 동해 300m 수심에서 잡은 빨간새우와 생선회로 뒤풀이를 즐겼다.

몇몇은 오래 살아 볼거라고 홍삼인동초를 샀다. 모두 한 잔술에 취해 노래하며 부산으로 돌아왔다.

3회 용마골프대회 준비위원회 열려

동창회장기 쟁탈 제3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7월 19일 오후 12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오복식당에서 제3회 용마골프대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중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회장을 비롯, 본부사무국 최득호국장(11회) 김병수총무(22회)와 본부총무단 협의회원 경총회 김수현회장(5회) 옥윤석간사장(16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3회 대회는 예년과 같이 본부사무국과 경총회 간사장 등 관계자가 제반사항을 추진기로 했다.

제1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는 98년 12월3일 통도사CC에서, 2회 대회는 99년 5월7일 동래베네스트GC에서 각각 열려 제20회와 제25회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옥간사장은 지난 1, 2회 대회의 추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18회 바둑대회 화합다져

우승 신준기·육병규 차지

제18회동기회는 6월24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무실에서 바둑대회를 열었다.

양정만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는 23명이 참석, A(3급 이상), B(3급 이하)로 나뉘어 대국을 치렀다.

A조 우승 신준기·준우승 진상영, B조 우승 육병규·준우승 이항우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대회를 마친 일행은 꽃게탕집에서 회식을 하고 양회장이 경영하는 '축제가요영상'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200돌기념 산행대회 배내골서 | 제14회 등산회 부부 46명 참석

제14회동기회 14K등산회 200회 산행기념 부부동반 등산대회가 6월18일 경남 양산 근교 배내골 영남알프스산장~파래소폭포 코스에서 열렸다.

박정홍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노수덕동기회장 등 동문-부인 46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산행 후 황톳길길방파와 노래방파, 주당파 등으로 나눠 기분을 풀었고 저녁 단합회로 마무리했다.



200돌기념산행에 참석한 제14회동기회 부부들이 파래소폭포 일대에서 화합과 유교 있다.

동문의 마라톤에 관한 각각의 특강을 듣는 시간이 마련돼 뜻깊었다.

기별대항 등산대회 김투삼 한편 정회장은 6월11일 열린 제1회 본부동창회 주최 기별대항 등산대

회에서 동기회가 감투상을 수상했고 보고한 후 동기회를 대표해 출전한 김장길 박찬호 서판근 윤상준 이영정 임상택 정준수동문 등의 노고를 치하했다.

제16회 서·사하회 부부동반 통영 나들이

제16회동기회 서·사하구회(회장 박문규)는 5월14일 경남 통영지역 일대에서 부부동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आय회를 열었다.

일행은 용화사를 들렀다가 뒷산으로 약 2시간 가량 등반했고 통영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달아공원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로 저 멀리 한려수도가 펼쳐져 보이는 그 유명한 비진도해수욕장 및 옥지도 삼랑도가

흩어져 있는 절경과 수려함에 탄성을 자아냈다.

뒤풀이로 제주도횃집에서 싱싱한 송어 도다리 광어, 정력에 좋다는 개불의 맛은 더더욱 입맛을 돋구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즐거운 आय회를 매달 갖자는 사모님의 제안이 나왔다.

제15회 임시총회

정기문 전회장 등 공로패 암벽등반·마라톤 특강 이채

제15회동기회는 7월4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용마홀에서 65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겸 임시총회를 열었다.

정정환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첫 공식행사로 화합·결속의 결의가 넘쳤다.

정회장은 강무상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기문 직전회장과 김기평 김판원 윤상준 등 직전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모임은 특히 축배에 이어 이순구 임상택동문의 암벽등반, 이영정

신임회장 김성주

제27회 馬昌壽 총회



제27회동기회 마산창원지역회는 6월26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 삼수갑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성주동문(창원시청 기획실·사진)을 선출했다. 마창회는 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김중하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역내 동문 13명(회원 15명)을 비롯해 부산의 본부동기회서 김홍근 김현수동문, 서울의 김종철 이기봉 동문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문들은 격의없이 술잔을 나누며 더욱 결속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서울의 이동문은 모처럼 반

가운 친구들을 만나 감개무량하다며 이날의 회식비를 전액 부담해 또 한차례 박수를 받았다.

마창회에서는 본부동기회 소식지 발간비로 10만원을 협찬했다.

가족초청 행사 열기로

제27회 해운대회 월례회

제27회동기회 해운대회는 5월23일 오후 7시30분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등촌버섯식당'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강봉호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16명의 동문이 참석, 총무에 허한동문을 선임했다.

또 정기모임은 동기회 월례회를 피해 격월 홀수달로 정했고, 연중 한 차례는 부부동반으로 모이기로 결의했다.



국제철인3종경기 완주 후 기념메달을 걸고 기뻐하는 박치호동문(27회).

의사동문 47세의 박치호(27회) '인간승리' 국제철인3종경기 완주

47세의 의사동문이 국제철인3종경기대회에 치녀출전, 13시간49분 23초 기록으로 완주해 포커스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피부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치호동문(27회).

박동문은 7월2일 제주에서 열린 2000국제철인3종경기대회(2000 Iron Man Tri Asthlon 제주 코리아

대운산 합동산행

제8회 서울·부산 산우회

제8회동기회는 5월13일 대운산(878m)에서 부산(회장 조봉석 등 9명) 서울(회장 김영철 등 11명) 산우회 공동주재로 경부합동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일행은 대운산 도립공원 대표소에 집결하여 케이불카~구름다리~마천대 정상~금강폭포~220계단~수락재~논산으로 하산했다.

재경8회 클럽별 활동

팔선회 일품·자스민기원서

제8회재경동기회 소속 바둑모임인 '팔선회'와 골프모임인 '잔디회'의 6~7월 행사가 각각 다음과 같이 개최됐다.

△팔선회(회장 이우환)=7월 행사 1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 6월 행사 3일 오후 1시30분 자스민기원(9명 참석).

우승 박지병 장은아씨

잔디회 90회 월례회

△잔디회(회장 이창근)=7월6일 오전 8시 안성CC에서 제91회 월례회.

6월1일 안성 CC에서 제90회 월례회. 남자부 우승 박지병(94타)·준우승 이창규·3등 윤태영·행운상 이창근동문, 여자부 우승 장은아·행운상 전은희씨 차지.

월우회 आय회

고성서 1박2일

제26회 클럽별 활동

제26회 동기회는 6월 26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다일한우촌(조영석 동문 운영)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각 클럽별로 활동을 벌였다.

▷ 26회(산악회·회장 김태년)=6월18일 부부동반 금정산 산행.

▷ 26회(골프회·회장 최윤림)=6월8일 동부산CC에서 월례라운딩.

▷ 26회(기우회·회장 장종연)=5월13일 부산 금정구 지하철 정전역 근처 한신기원서 월례대회.

▷ 월우회(회장 지용섭)=수영·남·해운대구 회원들의 모임인 월우회는 6월11일 부부동반(20여명)으로 경남 고성에서 1박 2일 आय회.

▷ 26회(테니스회·회장 김상현)=5월14일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기별대항 테니스대회에서 김동의 우승. 최병무동문(동아의료원 정신과 과장)이 최우수선수상, 장원용동문(변호사)이 행운대상상을 수상.

대회)에 출전, 수영3.8km- 사이클 182km-마라톤 42.195km를 총 13시간49분23초로 완주해 순위 569위를 마크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 1036명이 출전했다.

박동문은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동호인들과 1년 전부터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순위보다 완주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습을 잘한 탓으로 웬만한 산들은 뛰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박동문은 "대회 당일 비가 내리고 안개까지 끼어 수영 때는 반환점이 보이지 않아 에를 먹었으나, 사이클 레이스 중엔 도로변에서 튼튼이 쉬면서 응원 나온 아주머니들과 농담도 했다"고 밝혔다.

박동문은 이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나 아직도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울릉도 탐사여행에서 포즈를 취한 제12회동기회 용마테니스회 회원들.

꿈에 그리던 울릉도 탐사여행

제12회 용마테니스회 부부 24명 "가슴 울렁울렁"

제12회동기회 용마테니스회의 가족동반 울릉도 여행이 6월3~5일 2박3일 일정으로 열렸다. 장동석회장이 주재한 이번 여행에는 동문 13명과 부인 11명 등 모두 24명이 참가, '청소년섬탐사'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3일 경북 포항에서 쾌속정 선 프라

워호를 탄 일행은 선상파티로 '도시탈출'의 해방감을 만끽했다. 4일 여행단은 아침 식사 후 성인봉(해발 984m)에 올랐고 산을 내려와서 발린 개척도로 도동~죽도~천정~통구며~간령을 둘러보는 섬 일주 관광을 했다. 5일 키가길의 여흥도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바탕.

제27회 월례회 성황 56명 참석 "경이"연발

제27회동기회 6월 월례회가 6월 23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나무집에서 동문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월례회 참석률은 홈커밍데이나 송년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적이어서 모두들 "경이적이다"를 연발했다. 문두찬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지역회 산우회 기우회 등 취미클럽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한 문화장의 의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진 수석총무는 제1회 기념대회 등산대회 준우승 수상 등 경과보고를 했다.

여름 지리산서 "펄펄 날다"

등열회 산꾼 5명 천왕봉 성공 이철산우회 9명 치발목 도전

여름철에 지리산 천왕봉과 치발목 등반에 도전한 두 동기회의 용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10회동기회 동문들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회 산우회인 등열회 회원 조상배(동기회장) 김한조 김종원 허섭 정종환 동문 등 5명은 6월 24~26일 2박3일 코스의 지리산 천왕봉 등반에 성공했다.

회갑을 훨씬 넘은 이들은 첫날 중산리의 '로타리산장'에서 1박한 후 뒷날 오전 7시 산장을 나서 천왕봉의 정상에 올랐다.

제27회의 용마이철산우회 장기남(산행대장) 강봉호 및 부인, 강태영 박상훈 박찬석 윤지환 이상렬 김현수동문 등 9명은 7월9일 지리산 치발목에서 제117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불벌대위를 뚫고 베이스캠프인 조개골산장식당 출발~들머리인 신발골~첫 계곡~두번째 계곡~침실~낮잠~샐터~치발목산장 도착.

치발목은 천왕봉을 비롯한 세리봉 중봉 하봉에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 참취 등 취나물이 지천에 널려있어 '치발목'이라 불린다.

올라올 때는 죽는 시늉을 한 김현수동문이 내려갈 때는 펄펄 날아가는 듯해서 칭찬을 받았다.

재미있는 풍수지리

日人の 우리나라 風水 침략 (下)

文 峻 珊 (제6회·풍수지리사)

연나산을 중심으로 남방 4km 지점은 태화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천혈의 명당이 있다. 이 곳의 혈을 자르기 위해 연나산 정수리에 단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철주와 도로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지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천황'산은 일본 천황의 명칭을 붙인 산.

경남 함안군 여항면 쌍계천은 원래 금계천, 충남 논산군 가경읍 남교리의 북망산의 북산 등이 그렇다.

전남 여천군, 옥천군 군북면 우두리는 힘센 장사가 태어난다고 해 쓰기 쉬운 구건리로 변경했다. 전북 순창군 쌍서면 적곡리는 일본이 '적곡'밭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곡'으로 고쳤다.

내무부는 또 일제가 자의적으로 바꾼 지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행정지명 105건, 자연지명 24건 등 129건이 교묘하게 개명된 것으로 밝혀내고 시 군 구 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고유지명으로 환원키로 했다.

그리고 주민제보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금속 탐지기와 전문인력을 동원해 쇠말뚝 제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보자 대부분이 구전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지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국 명소마다 일제 쇠말뚝이 있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제 쇠말뚝 지역 기관장·문화재위원·향토사학자·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쇠말뚝은 산신계를 지내고 제거됐다. 뿔한 쇠말뚝은 시 군 별로 향토 민속자료전시관 등에 보관 전시돼 있다.

일제의 쇠말뚝 발견지점은 강원 경우 양구군 남면 아촌리 밤골 정상 2개를 비롯해 모두 10개다. 충북은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미암산 문수봉 1개를 비롯해 4개, 전북은 완주군 고산면 소량리 서방산 능선 2개, 경북은 구미시 금오산 정상 1개 등 5개로 추정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울기등대 용추암 정수리에 박혀있는 쇠말뚝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일본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토함산에서 동으로 낙맥(落脈)한 산룡(山龍) 50리를 이끌고 내려와 수중(水中)에 음룡(陰龍)을 일으켜 문무왕 수증봉을 만들었다. 여기서 남으로 수룡(水龍)100리를 휘돌아 대왕암 양룡(陽龍)을 만드니 산룡백리 수룡백리가 만들어 낸 천의 명당 수중혈(水中穴)에 자의왕후가 수장되어 한 마리 용이 되니 문무왕 수증봉과 조화를 이룬다. 최근 동울산 향토연구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두구의 석관이 수중에 나란히 있고, 대왕암의 남쪽 100m지점 용추암에 쇠말뚝이 박혔다고 한다.

일본이 동구 방어진 구룡(九龍)의 혈을 끊기 위해 무릉산에서 남으로 뻗은 정맥에 혈을 끊었고 다시 20리를 내려와 또 혈을 끊었다.

(끝)

제15회 동기회 클럽별 활동

제15회동기회의 각 클럽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3.8회(회장 홍상석)=3-8반 반청회인 3.8회는 7월 7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장 등남길부둣에서 부부동반 정기모임(11명 참석).
▷ 일오골프회(회장 신홍규)=6월 25일 통도CC에서 회장기증 금메달 쟁탈 골프대회.
우승 한해수·준우승 박찬식 메달리스트 손재형·3위 손부흥·니얼리스트 신홍규·롱이스트 강민조·해운상 이종명.

특히 신홍규 회장의 금메달(4등반) 협찬을 비롯해 우승 한해수 30만원, 구형우 20만원, 정창환(동기회장) 박찬식 이은수 동문이 각각 10만원씩 쾌척했다.
▷ 동기회관 운영위 개최=손부흥 동기회관 운영위원장은 6월2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본부회관 6층의 동기회관에서 2000년 1차 운영위 개최. 예산안 등 주요의제 승인.

▷ 일오산우회=6월18일 금정산에서 동문 19명과 부인 7명 등 모두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행대회.

일행은 손부흥 산행대장의 리더로 산행을 잘 끝낸 후 허심청에서 온천욕, 명성굴탐에서 회식, 2차 뒤풀이 등으로 하루 즐김.

▷ 이화회(회장 김광홍)=6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북구 신만덕동 옛집에서 월례회. 정창환 동기회장과 강무상 총무 참석, 금일봉 전달.

▷ 사하회(회장 김창구)=6월 11일 부부동반 양남공원 일원 관광단합회.

18회 강서·서·사하구회 모금50만원 동기회 협찬

제18회동기회 강서·서·사하구지역회는 5월26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무실에서 임도근회장 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월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김종철동기회장과 최희영·오수명총무가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임회장과 김길홍동문(한국주철관 대표이사)이 타올과 케이크를 협찬했고 특별히 모금한 50만원을 동기회 운영기금으로 전달했다.

오랜만에 모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행은 임회장이 스폰서한 뒤풀이에서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정기모임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風水地理

- 묘지의 선정 및 길흉화복 감정
- 주택 빌딩 공장터 감정
- ※ 理論과 實務를 겸한
- 답산 감정경력 30년

김준모 (11회)

서울 종로구 신교동 40-1
도암빌라 202호
자택 : 02-738-0201
H.P : 016-287-6750

당희소식

연락을 주시면 일주일분 신제품을 무료로 복용할 기회를 드립니다!!

당뇨 전문 신문 무료 배부!!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체계적 당뇨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수록된 「건강 포커스 신문」을 매월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생담)수신자부담 : ☎ 080-086-4989 ☎ (051)469-8484

<건강포커스신문사 부설 신통한 사업부>

대표 임영섭 (18회)

핸드폰 011-849-9101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단지내 (14호)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 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후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 (37회)

과장 고영민 (40회)

과장 최봉재 (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도읍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제13회 동기회는 5월20일은 양서 경부 협동 만남의 날을 열고 수학여행 기분을 만끽했다.



경남 마산 근교 무학산에 오른 제21회 동문-부인들이 한한 표정으로 기념촬영.

제13회 서울-부산 산꾼 '수학여행' 온양서 이틀간 회포 풀어

제13회동기회(회장 이성빈)의 부산-서울 산우(山友)들이 충남 온양에서 '만남의 날'을 즐겼다. 부산의 일삼산우회 회원 21명과 서울 경암산악회 회원 16명은 5월20일 충남 천안에서 반갑게 만나 온양에 여장을 풀고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일삼회 강기동회장과 경암회 신용회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는 21일까지 이틀간 천안~온양 일원의 관광지에서 펼쳐졌다. 특히 일행은 국회의원인 정문화동문과 신회장의 각별한 성원에 감사했다. 한편 문형재동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에 온양에 온 부산팀은 귀가길에

독립기념관 등을 추가로 둘러보고 '수학여행' 기분을 만끽했다.

동기회관 운영예산 3500만원 승인 제15회, 이사회 개최

제15회동기회는 6월2일 오후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관광호텔 3층 천마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창환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50여명의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동기회 및 동기회관 운영

예산액 3500만원을 통과시켰다. 또 7월4일 월례회 겸 총회를 개최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일행은 뒤풀이로 이 호텔 15층 가라오케룸에서 여흥을 즐겼다.

제21회동기회(회장 전기환) 부부 동반 등반대회가 5월28일 마산창원 지역동기회 초청으로 마산 무학산(해발 593m)에서 열렸다.

이날 동문-가족 40여명은 무학산 정상에 올라 불 산행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산한 후 마창동문들의 후한 접대 속에 단합회를 가졌다.



금정산에 올라 우정을 나누는 제29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이 북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금정산 올라 제29회 이구등산회

제29회동기회 이구등산회는 4월16일 범어사~고당봉~북문 코스의 등산대회를 열었다. 일행은 김영화동문의 익살로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하산을 했다. 한편 등산을 원하는 동기들은 흥분택 이구등산회 총무에게 연락하면 된다(011-838-4689). 이날 한휘철 배현호 배현호 이강훈 이상용 이충원 최정만 장현경 정상국 권두진동문은 솔로로, 김민호 김부겸 김연래 김영화 김재현 김정규 좌경보 동문은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지금은 애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부모 곁을 많이 떠나 있다보니 일상의 생활이 조용하고 단조롭고 무료하다. 25여년 전 집집마다 애들이 울망종말 했던 그때는 기별 야구대회 준비로 매주 아이 나들이에 바빴었다.

아름다운 추억

유정숙

(16회 이구방동문 부인)



선수들이 아버지들을 따라 애들과 엄마들은 감밥 싸들고 야유회 겸한 나들이로 조금은 설레고 들뜬 기분이었다. 북닥거리던 집안에서 탈출하는 기분으로 집을 나서게 되는데 행선지라야 거의 일정한 곳으로 은행 전용야구장이 있는 위탁시설도 없는 서울 근교가 대부분이었다.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 위에 실린 마른 풀잎이며 모래가 김밥과 과일을 덮치기도 했지만 모두 즐거웠던 하루였다. 두 서너살 터울의 아이들이 집집마다 두 셋은 되었으니 매번 몇십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거의 다 알아맞힐 수 있도록 부모를 닮았던 2세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매주 결혼 소식을 전해주곤 하는데 가능한 한 꼭 참석을 한다. 어릴 때 보아왔던 당사자일 때는 감회가 더욱 남다르

다. 어릴 적 모습을 옛 기억을 더듬어 조금은 찾아 내게 된다. 하나 같이 어여쁜 숙녀로, 의젓한 청년으로 변한 모습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게 한다. 30을 갓 넘겼던 한창 나이의 아빠들 모습은 화듯화듯한 머리의 중후한 신사의 모습으로 변해있고 선이 끊던 몇몇 엄마들 눈가에 잠긴 잔주름은 지난 세월이 무심히 흐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 각각 다른 생활을 했겠지만 집집마다 사람 모습이야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때로는 힘들고 고달팠던 일상의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손님을 맞는 혼주들이나 축하하러 온 동기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요즈음 생활의 또 다른 축복이요 행복을 느낀다. 장성한 자식이 지난 세월의 우리 모습임에야 아니 즐거울 것인가. 또한 동기라는 이름으로 같은 주제로 자주 만나며 살아온 모두가 지난날

에도 그러했지만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남은 우리들의 날에도 결혼한 애들이 사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며 또 다른 즐거운 주제로 모임은 그렇게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이팅!'

오늘은 남편의 모교에서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학교 벤치엔 어느새 많은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와 있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선

흥커밍데이

정혜선

(34회 황병주회장 부인)



생님의 모습은 모래알처럼 잔잔한 미소로 변해 있었다. 20년의 긴 세월이 문득 나의 학창 시절이 그림 속의 풍경처럼 언뜻 스쳐 지나갔다. 비 온 뒤 명암이 깊어진 하늘, 이슬 머금은 풀잎들, 한창 달아오른 학교 벤치의 열기에 나무숲이 아른거린다. 1시간쯤 국산기념관에서 식도 거행하고 마지막으로 교가를 부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삶의 노래로 들려왔다. 우리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행사는 코모도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재치와 유머로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동안 애써주시던 준비위원들과 남편 그리고 많은 친구들, 서울과 지방에서 참석하신 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년 뒤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모두의 행복을 빌었다.

부인석

제13회 동기회 임원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이상택 한병조

본부동창회 이사

이성빈 오원수 박영주 조동구 장 청

고문

김상현 변종길 손재우 송문일 이범경 이철세 오원수 장 청 최반영 한병조 허갑도 홍창수 정문화

회장

이성빈

수석부회장

김환문

부회장

김귀동 김정문 고송구 공한국 구창덕 권영채 김 청 김치득 김현규 김홍철 남영기 박계부 박영출 박종탁 신민철 안준수 오한수 정삼영 제병민 조달근 차영일 최영재

이사

김수민 강종원 권오덕 권순길 김 일 김간웅 김강석 김광수 김말남 김무조 김부조 김상치 김소웅 김수일 김승언 김永吉 김榮信 김초삼 김장웅 김문홍 김정성 김정일 김정태 김춘길 김태웅 김학대 문 창 문형재 박경오 박민보 박안호 박영식 박주열 박진태 박창길 박홍표 배대걸 배영봉 백명조 백원호 송영석 송창식 신하근 안성문 안수웅 안종일 오상찬 옥종환 유수종 윤진규 이경준 이규채 이인부 이영현 이용웅 이유경 이일희 이종달 이종두 이종영 이천석 이태량 임용수

장영 장미주 정덕치 정연호 정영일 정영화 정은섭

정진화 조용갑 조원석 최영환

감사

김백조 김신부

총무

문현길 장위추

재경동기회 회장 조동구

총무 허 훈

동기회 각 서클

경용회(회장 손재우·총무 장 청) 경천회(회장 문형재·총무 김학대) 금동회(회장 공한국·총무 이규채)

가우회(회장 장 영·총무 장위추)

바다회(회장 박영출·총무 박진태)

산우회(회장 김귀동·총무 문현길)

한삼회(회장 박종탁·총무 김춘길)

테니스(회장 이태람)

총동창회 용마산악회 부회장 제병민

동기회 각 지역 회장·이사

마창지역 회장 : 노일웅

울산지역 회장 : 심진영

김해지역 회장 : 최태환

총무지역 회장 : 박일웅

진주지역 회장 : 이병환

울산지역 이사 : 김정길 성정호 이태남 조광수

조준탁 육창웅

마산지역 이사 : 구덕건 김의환 나준남 이경재

이호준 조형재

※ 동기회의 발전과 동기생간의 인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凡事留人情하니 後來好相見이니라)

어디서 무엇을

제 4 회

姜汰鉉=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 1차아파트 3동301호. 051-851-1743
 金重根=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28 영남아파트 103동604호. 051-704-5742
 金志聖=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81-1 코오롱아파트 113동202호. 051-325-7707
 金東基=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1525-1 201호. 02-888-5818
 朴 燻=부산시 기장군 교리 247 태영아파트 5동503호. 051-712-0218
 薛英佑=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우 2차아파트 211동1901호. 051-703-4702
 梁鍾學=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490 동원보라아파트 102동1903호. 051-611-3374
 李正善=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유신아파트 5동205호. 051-264-5847
 李滢秀=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경동아파트 108동303호. 051-731-4195
 田德圓=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 2차아파트 203동802호. 051-702-6991
 金正坤=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산2리. 054-673-1703
 黃玄圭=대구시 남구 대명2동 1980. 053-623-1221
 鄭舜模=대구시 남구 봉덕동 985-17. 053-267-6436

제 5 회

金洙鉉=(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174-1 명장SK아파트 102동1403호. 051-526-4625

제 6 회

裴極千=5월11일 별세(영락공원)

제 8 회

趙晟來=(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아파트 304동2202호. 051-731-6042
 沈載斗=6월25일 목화예식장에서 3남 영보군 결혼
 金鍾雲=7월22일 부산호텔에서 장남 현수군 결혼

제 10 회

徐鳳源=(자택)부산시 북구 화명동 벽산아파트 108동1501호. 051-361-2937
 李奉源=(취임)부산 청소년 종합상담실 상담실장. 051-804-5001

李義道=태강전기공업사 대표. 051-412-0493
 孫永紹=밀양 추하사슴농장 대표. 055-355-3933
 吳剛旭=본부 부회장. 남선곡산(주) 대표이사. 7월14일 모친 별세. (자택)051-552-1539

제 12 회

姜洙憲=12회 용마골프회 회장. 6월 17~18일 서울 동기회와 친선대회에 회원들과 참가 단체 우승 차지
 金光一=(사무실이전)변호사 김광일 법률사무소. 부산시 서구 부민동1가 29 동광빌딩 3층. 051-256-7972
 金起秀=12회 재경용마골프회 회장. 부산 서울 친선대회 준비와 예정 어린 친구맞이에 수고 많았습니다
 金善一=5월24일 서울에서 장녀 혜경양 결혼
 金鍾聲=6월9일 코모도호텔 층무홀에 동아대학병원 내과학교실 동문회에서 김교수 30년 기념 논문집 출간 증정식 마련. 이날 부인 최숙희 여사 시집출간 기념회도 함께 가짐
 吳世正=6월24일 아들 승탁군 결혼
 李鍾石=6월10일 차녀 정의양 결혼
 鄭大植=5월24일 차남 현욱군 결혼
 鄭仁泰=6월10일부터 19일까지 대청동 소재 가톨릭센터 전신실에서 개인작품전 성황리에 마침
 秋英宰=6월24일 모친 별세
 許泰正=5월 비구위시 지심도 출간
 潘昌鎭=7월 9일 별세. 석계공원 묘지
 박상도=한국해외기술공사 사장

제 13 회

文炯才=5월7일 오후1시 부산호텔서 장남 정기군 결혼
 朴景五=5월10일 모친 별세
 金春吉=5월13일 오후 2시 남천성당에서 장남 결혼
 姜相俊=5월14일 모친 별세
 金文雄=5월28일 오후 1시 금호예식장에서 장남 태민군 결혼
 申敏微=(개소)신민철세무회계사무소. 051-646-0141. 011-593-5637
 趙源錫=(개업)하나로카페테리아. 051-951-1515.
 李鍾達=6월18일 12시30분 대도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辛河根=(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중부동 696-1 대동왕토방아파트 117동602호. 055-384-1331. 011-882-1332

박상도=한국해외기술공사 사장

제 14 회

金友龜=선화약국 대표. 051-802-6994. 7월1일 서울 사립연금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장녀 결혼. (자택) 051-522-8663
 姜哲雄=선장. 5월25일 부인 별세. 부산대학병원 영안실. (자택)051-897-9376
 李大烘=(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매화마을 청구빌라 607동404호. 0502-916-9280
 鄭賢鎬=(자택)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신경마을 802동203호. 031-265-4867
 李彰彦=(자택)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111-110
 全秀信=(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5동 1501호
 宋哉憲=서울고등법원 원장. 33년간의 공직생활 마감. 7월10일자로 사임. 변호사 개업예정. 02-523-7637

제 15 회

박중호=TOA그룹(주) 하마사끼 회장
 朴贊皓=(확장이전)(주)신승건설 대표.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8-11 함운복지회관 3층. 051-441-9907
 黃慶男=(재미) 6월1일 경기도 일산시 분당 세생병원에서 모친 별세
 書武雄=6월1일 모친 별세(영락공원 묘지)
 韓彰淑=6월2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별세
 柳志英=6월4일 부산 현대병원에서 질병으로 모친 별세
 金正桓=6월10일 오후 3시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창욱군 결혼
 李永正=6월25일 오전 11시 서울 자유센터웨딩홀에서 딸 사우양 결혼

제 17 회

정두호=LG화학 산업재사업본부장/부사장
 박용언=제일건설철사 설립

제 18 회

金聖洙=강 서 사하지역 재무국장. 011-590-2273
 金英玉=오페라하우스레스토랑 대표.

051-294-0995
 金元泰=김원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051-241-0700~1
 金正泰=신원정보(주) 남경캐미칼 대표. 051-301-8161
 金鍾琴=김종금산부인과의원장. 051-291-5335
 朴善東=동주대학 국제비서과 교수. 051-200-3352
 李鎬國=동대신2동 새마을금고 전무. 051-255-9072
 張壽奉=(개업)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徐在鳳=(취임)MSC 대표이사. 051-463-8261
 林容源=(취임)조흥은행 부산본부장. 051-817-8500
 芮月水=(취임)한국신용보증기금 영남본부장. 051-633-4065
 金永一=국군 대구통합병원장.
 朴省鐵=(이전개업)박성철소아과의원. 051-581-4301
 張淵植=(부임)동진CY(주) 이사. 051-741-5841
 崔英一=(승진)(주)금양 온산공장 부사장
 김종길=남성해운 상무이사

제 19 회

남기진=(취임)우전기업 대표이사

제 20 회

조영철=CJ39쇼핑 대표이사
 변기석=(승진)한국은행 시장금융국 수석조사역

제 21 회

이승현=동남아해운 대표이사 취임

제 22 회

권성술=남성해운 이사 승진
 허승조=LG백화점 사장으로 영전

제 23 회

박영진=남성해운 이사 승진
 정귀출=범한종합물류 전무 승진
 한호근=천경콘크리트나타미널 상무 승진

제 25 회

金鎬喆=(상호변경)(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경남 양산시 교동 117. 055-383-7900
 李寅九=(주)디에스아이 이사. 6월 코스닥 등록

李東錫=(개업)북한음식전문점 고구려인. 051-207-0008
 鄭同雲=유림란농원 대표. 051-581-9828
 金東鈴=울산지역동기회장. 현대자동차 품질관리실 부장. 052-280-8591. 011-577-7675
 孫秀一=울산지역동기회 총무.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협의회 공단관리부장. 052-272-1087. 017-560-1807
 金銅鎭=울산병원 외과과장. 052-259-5021
 朴巨煥=한국카프로락탐(주) 교대과장. 052-270-9790
 朴東健=박동건신경정신과의원 원장. 052-243-9712
 朴孟雨=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장. 052-229-3800
 朴仁東=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052-230-3222
 裴錫千=경동공업(주) 상무이사. 052-287-1936
 成民出=울산 중부경찰서장. 052-281-7660
 梁時旭=아람바독교실 대표. 052-265-6763
 黃琪微=산업안전공단 포항지점 부장. 054-277-0734
 朴点用=울산공고 교사. 052-265-0812

제 26 회

成在業=5월7일 부친 별세. 051-516-2723. 051-514-3744
 金一光=서울로 전근. 02-920-8232
 朴東憲=(전근)대한투자신탁 동래지점. 051-553-0701
 崔明海=(전근)날코 코리아 부산지점.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7-8 세진빌딩 202호. 051-463-8937. (자택)부산시 사하구 다대포 삼환아파트 101동1206호. 051-263-8869
 魏勝男=부산시 금정구 선동 536-7. 051-581-9622
 朴載旭=(개업)(주)일공공일자동차 판매, 경매.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26. 051-325-1001
 曹永錫=(개업)다일한우촌. 부산 범일동 자유시장 건너편. 051-642-3390.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삼성콘도맨션 408호. 051-742-8193
 朴永才=태창기업 감사.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910-22. 055-370-1216
 김지승=태창기업 사업부 이사. 055-370-1216
 朴判基=(개업이전)아도니스안경점. 부산시 대연사거리. 051-626-3211. 628-6163.

(7면에 계속)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매 이내(명함판 사진 1매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6면에서 계속)

崔炳武=제25회 용마테니스대회 최
우수선수상
秋基福=금정여자고등학교. 051-
523-1424~5. 011-563-4210
李永德=(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 202동202호
張永建=서울 서2초등학교. 02-
3474-7020. (자택)02-876-
3217
朴福洙=동기회 총무. (개업)한빛공
인증개사 사무소. 부산시 남구 문
현3동 183-76. 051-632-6866.
011-564-3619
崔義壽=동기회 수첩 명단에 빠졌으
니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동기회
총무(박복수 051-632-6866)에
게 연락바랍니다.
송옥호=DONA KOREA 전무이사 취
임
김용찬=우신전자통신(주) 이사로
취임

제 27 회

金判洙=(근무지이동)부산청과(주)
총무이사. 051-320-5180. (자
택)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삼익
아파트 1동105호. 051-242-
6332
金洪根=(근무지이동)(주)KOPHO산
업 사무이사. 02-465-8181. (자
택)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동현아
파트 5동409호. 051-518-9425
李英煜=대양전기공업(주) 상무이
사. 051-260-3503. (자택)부산
시 해운대구 좌동 효성코오롱아파
트 105동502호. 051-744-1440
柳在傑=덕문중학교 교사. 051-971-
4130. 5월26일 부친 별세. (자
택)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LG아
파트 103동1804호. 051-327-
5537
康承浩=(근무지이동)부산 서구보건
소 소장. 051-242-4000. (자택)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로얄이
스트 703호. 011-9882-0788
朴贊龍=(승진)부산문화방송국 광고
사업국 업무부 부장. 051-760-
1092.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
동 화목타운 106동602호. 051-
703-4565
鄭光模=(개업)영진상사 대표. 051-
468-1523. (자택)부산시 금정
구 구서2동 신동아아파트 101동
2002호. 051-581-1219
白玫瑰=부흥고등학교 역사교사.
051-702-2892. (자택)부산시 해
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06동
2202호. 051-701-1773
李基雨=통상산업부 행정정보 담당
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상담실장
으로 파견. 02-3460-7570. (자
택)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은마아

파트 19동1103호. 02-3453-
3263
成炳哲=(근무지이동)E-TRADE
KOREA이사. 02-3779-0122.
(자택)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롯데
스카이라운지 2901호. 02-835-
7855
張性哲=(주)동일건축 기술부 이사.
02-719-5891. (자택)서울시 양
천구 목6동 신시가지 119동1001
호. 02-6736-9199
金龍勳=순천향대학 천안병원 내과
교수. 041-570-2124. (자택)충
남 천안시 성정동 현대아파트 104
동1204호. 041-576-9798
都在元=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신경
외과 교수. 041-570-2148. (자
택)충남 천안시 청수동 LG아파트
114동404호. 041-555-7357
趙君濟=동아제약(주) 생활건강사업
부 부장. 02-920-8520. (자택)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현대2차아
파트 201동504호. 02-903-5710
金東鳴=(株)Nikon 精機會社 液晶露
光裝置營業部(日本東京本社) 事
東京都 千代田區 丸の内3-2-3
富士ビル 81-3-3216-1068 (자
택)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
운 107동 1405호. 031-715-
3778
朴得松=YTN(연합텔레비전뉴스)放
送局 日本東京支局長 事)東京都
港區 赤坂5-3-6 TBS放送 13階
81-3-5571-4033 (자택)東京都
新宿區 市谷柳田 渡辺ビル 1棟301
号 81-3-3235-9553
韓昌憲=日本三星(株) 福岡支社長
(水産物部) 81-92-475-7025
事)福岡県 福岡市 博多區 博多駅
前 3-2-1 日本生命ビル 11階
(자택)福岡県 福岡市 東區 香椎浜
4丁目 1-6-801. 81-92-683-
5503
朴明俊=(개업)SARAH GOLF
SCHOOL 원장. 051-466-0992.
(자택)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용
두산아파트 201호. 051-253-
6887. 동기회 사무실을 제공하였습
니다(골프연습장 옆 20평정도)
金黃烈=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과.
051-240-1493. (자택)부산시 수
영구 망미동 현대한누리 104동306
호. 051-755-0300
金知元=창신산업(주) 대표이사.
055-342-8060. (자택)부산
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106
동301호. 051-743-0170
尹石南=S-oil(쌍용정유) 울산지소
장. 052-258-5150. (자택)부산
시 연제구 연산9동 주공아파트
106동801호. 051-751-7554

어디서 무엇을

朴甲成=삼성중공업(주) 건설부문
부장. 02-831-7090. (자택)서울
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1111호. 02-558-7038
金學熙=문화방송(MBC) 시사정보국
제1부장. 02-789-1551. 아침 6
시30분부터 방송되는 피자의 아침
책임 PD. (자택)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1동53호. 02-
784-9957
張基在=웅진코웨이(주) 판매부장.
031-469-8176. (자택)경기도 군
포시 금정동 853-2. 031-398-
4869
黃貴洋=(자택이사)부산시 서구 동
대신동3가 260 (11/4). 051-243-
9959
김재섭=VOLVO 건설기계 생산관리
팀
김호섭=삼성전자 정보기전부분 부
장
정재호=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
정과 심사관
공기열=호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유근=(개업)유림시스템
조명진=E point 대표. (주)E farm,
(주)E food 두개의 회사 설립

제 29 회

金榮=교육부 중등장학사. 051-
860-0267
金再憲=(이전개업)자해내과의원.
부산시 수영구 망미주공아파트 앞
051-759-0284~5
朴英奇=3월23일 부친 별세
李相龍=(이전개업)내과의원. 부
산 송도UN호텔 옆. 051-247-
9671
鄭有盛=4월11일 부친 별세. 4월22
일 모친 별세
林武澤=4월17일 모친 별세
金光萬=(이전개업)피부과의원. 부
산 롯데호텔 11층. 051-810-
8130
朴英奇=(이전개업)정근안과의원.
051-808-0111
金大旭=(이전)(주)태화마린. 부산
시 해운대구 좌동 1485-1 새삼빌
딩 5층. 051-626-8733. 011-
584-8733. 5월14일 부산시민 바
둑대회 일반부 4위차지
朴東一=동의대한방병원장. 051-
867-5165. (자택)부산시 해
운대구 좌동 두산아파트2차 202동
604호. 051-702-3017
安靑洪=고려종합국제운(주) 부산사
무소장. 051-466-4770. (자택이
사)부산시 영도구 마량마린 101동
1908호. 051-412-2439

河炫兌=한성장갑 대표. 051-505-
2110. 019-592-21.0. (자택이
사)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
아파트 202동301호. 051-862-
5184
林文洪=(주)연일 상무이사. 02-
2635-3601
李重熙=2월 동아대학교에서 생리학
의과박사 취득함
崔鍾洙=고려원자력 발전부장. 051-
726-3310. (자택)부산시 기장
군 장안읍 길천리 한빛아파트 204
동201호. 051-726-3982
李準桓=고려종합운송(주) 기획실장
서울본사로 전보발령. 011-594-
6628
金弘記=재경동기회장.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02-790-3856. 011-
241-9957
李相雲=재경동기회 총무. 영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02-3471-
8100. 011-345-6728
崔禎殷=재울산동기회장.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052-230-5546
李榮宰=재울산동기 총무. SK영업부
장. 011-880-0990
金起民=재마산창원동기회장. 창원대
교육학과 교수. 279-7256. 011-
580-8094
黃孟均=자모병원 산부인과. 051-
761-3510. (자택)부산시 수
영구 남천1동 우성브라아파트 101
동507호. 051-621-3379. 011-
878-0430
林尙昕=(승진)한진중공업 설계부장.
051-410-3347
鄭元國=밀양 현대약국. 055-354-
2040
朴東欽=영천 동진산업 대표. 054-
333-1990. 017-533-1990
李貞哲=3월 캐나다로 이민
文伯燮=5월22일 부친 별세
許玄道=5월22일 장인 별세
姜聖薰=5월14일 부산시민 바둑대회

최강부 4위차지

제 31 회

최인목=태영국제운송 이사로 승진

제 32 회

정옥현=신세계 마리아타임 이사로 승진

제 34 회

조남훈=동기회 총무. (주)대우자동차
차장팀영업소 과장. 051-262-
9300. (자택)부산시 사하구 다대2
동 94-5 다송아파트 102동 506
호. 051-264-8522. 011-858-
3304
황용민=드림투어(주) 전무이사.
051-468-0025. (자택)부산시 사
하구 괴정4동 586-10. 051-202-
8107. 016-848-8107

제 35 회

곽중호=경남고등학교 서무과 계장.
051-248-2186
柳仁秀=(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인락2동 15-3 SK쁘띠메종아파트
203동1602호. 051-521-1602

제 36 회

김현호=한솔전자시스템 부장. 051-644-2526. 011-9511-5804

제 38 회

柳仁植=부산시 당리동사무소. 051-
203-3005. (자택)부산시 사하
구 장림2동 65 협진태양아파트 1
동608호. 051-264-8629. 011-
845-8629
禹鍾完=일흥섬유. 051-302-4959.
(자택)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경남
한신아파트 102동701호. 051-518-
8370

경남고 '전국최강' 무산

화랑대기야구, 부산상고에 9-11 준우승

모교 경남고의 '야구전국제패' 꿈
이 한여름의 희망사항 이 됐다.
경남고는(교장 김성찬·12회,
야구감독 정연희·17회) 7월26일,
야구감독 정연희·17회) 7월26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폐막된
제52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
회 결승전에서 부산상고에 9-11
로 역전패, 눈앞의 우승을 에석하
게 놓쳤다.
경남고는 이날 부산상고를 맞아
6회까지 7-4로 크게 앞서 대망
의 화랑대기를 품에 안는 것은 시
간문제로 여겼으나 7회에 7점을
내주는 '불운의 이닝'에 휘말려 패
권의 꿈이 무산됐다.

2000년도 제17회 동기회 집행부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부동창회 부회장 김대성 최만식	부 회 장 강호일 김동수 김백수 김종대 김주영 김준위 김창운 손성근 송인문 신 종 여성열 우기남 윤성욱	이 중 덕 장정용 장휘행 전경명 정동길 정해전 정형근 조중언 허진호 현태일	김 무 부 김상천 김성오 김영진 김준연 김지창 문석용 박가식 박청홍 서정승 송수용 이건우 이기일 이범열	정 연 회 최만식 최성호 하영수 황수길	김 영 우 김영환 김용구 김정수 김종국 박도원 박신도 박영두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홍식 배민부	서 용 규 서창석 성윤환 안정의 양성일 양춘길 엄광호 옥영관 윤명수 이선형 이성훈 이승구 이인용	이 일 영 이재두 이종길 이종혁 이형우 장승구 전영명 정선홍 정해표 조용운 주상한 천용광 최세욱	감 사 박가식 김영환 총 무 강주수 전성광



<25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승학산 정상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진행요원들이 선수들의 등산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제1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동아대 학원단 운동장에서 열린 출정식.



▽점심식사후 출발식을 준비하는 장면.

▽환경보호상을 수상한 제32회동기회 선수들이 한동대 용마산약회장(오른쪽)으로부터 부상을 받고 있다.



한국 최초 옛 돌조각 박물관 개관

천신일(15회), 용인 5000평 숲속에 1만여점 전시

우리나라 최초의 돌조각 박물관이 한 용마의 집념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 용인시 양지리 울창한 숲속, 1만여점의 돌조각이 5000여평의 숲에서 숨을 쉬고 있다.

천신일동문(15회·전 본부동창회 부회장)이 평생 숙원사업으

생활 속의 돌(다듬이 등 생활용구관) △민속 신앙 속의 돌(미륵 등) △벽수동네(다양한 벽수관) △동자마을(다양한 동자관) △한국불교와 돌(식탑 등 불교신앙관) △12지신양조형탑(열두띠 동물상과 다듬이돌 4333개로 설치한 조형탑) 등 모두 10개



천신일동문(15회)이 천신일(15회)이 평생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종 돌조각 박물관'을 7월 1일 개관한 것.

로 추진해 온 '세종 돌조각 박물관'을 7월 1일 개관한 것.

"우리의 옛 돌조각은 예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유출이 심했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여년간 수집해 왔습니다."

천동문이 '세종 돌조각 박물관' 개관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이 박물관은 △회노애락의 언덕(문인·벽수 동자의 얼굴 표정관) △지역과 지방을 따라(지역별 돌 유물 분류관) △탐라국 동자들(제주 동자관) △돌집승과 함께(돌사자 등 석수관) △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천동문이 이같은 옛 돌 문화재로 박물관을 설립하게 된 것은 먼저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외국 관광객에게 널리 전시하면서 외국 옛 돌 문화재와 비교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문화재들의 해외 유출 방지와 유출된 옛 돌 문화재의 환수작업의 전초로 삼으려는데 있다.

고려대동창회 부회장이 천동문은 (주)세종 세종 컴퓨터시스템 세종엔지니어링 세종여행사 대표이사.

死鬪의 설악 적설등반 > <

김대원 (20회·구덕산우회 회장)

<일시> 2000년 2월 10~21일 14일(4박 5일)

<등반 코스> 장수대-대승령-1408봉-귀뚜기청봉-한계령삼거리-골청-중청-대청봉-회운각-무너미고개-신선봉-1275봉-나한봉-마동령-세존봉-장군봉-설악동

<대원> 이범열(17회) 김대원(20회) 오기현(20회 산행대장) 오기목(23회) 김보상(28회) 서영대(28회) 하대용(28회) 남기태(31회) 박상현(특별회원) 등 9명

<제1일> 밤새 달려 도착한 속초는 찬바람이 쐬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킨다.

해장국으로 속을 채우고 장수대로 향한다. 웅장한 울산바위 옆을 지나가며 이번 동계 중추가 예정대로 무사히 진행되기를 기원하는데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장수대를 8시에 출발하여 1시간 남짓 오르니 겹겹이 얼어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대승폭포에 닿는다. 잠시 휴식 후 능선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데 오랫동안 장기 산행에 나선 서영대회원이 30kg 가까운 배낭



설악산 적설 등반에 나선 9명의 동문들이 대청봉에서 포즈를 취했다.

에 힘겨운 숨소리가 옆으로 들려온다. 드디어 11시에 서북 주능선상인

대승령에 도착. 1289봉 조금 못미처 중식을 뜨거운 코코아와 행동식으로 간단히 때웠다. 큰감투봉옆

1408봉 지나 큰귀뚜기골을 옆으로 두고 내치는데 적설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산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까다로운 암벽의 급사면 몇 곳을 미끄러져 가며 보조 자일로 간신히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456봉 조금 못미처 야영 터에 도착하니 오후 4시20분이다. 밟고 밟아 겨우 다진 눈발에 텐트 3동을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하니 벌써 별들이 초롱초롱하다. 텐트 안에 빙 둘러 앉아 고기 굽고, 소주잔을 높이 드니 산 사나이들의 시커먼 얼굴 속에 웃음이 피어난다.

식사 후 필자가 텐트 안에서 눈썰미 물을 얼릴러 오대장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침낭 속으로 몸을 비벼 넣는다. (다음호에 계속)

이승하한의원

한방각과, 생혈액 현미경분석, 정맥혈관 레이저



원장 이승하(28회) 올림

☎ 506-5577~8

부산 동래구 사직2동 45-1 (사직주공아파트 아래 국민시장 내)

서민석 세무회계사무소

稅務士 徐 政 奭(30회)

- 기장대리·세무고문
- 신고대리(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등)
- 세무조정(법인세, 소득세) 및 결산
- 과세적부심사 청구
- 국세·지방세 불복청구
- 법인설립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등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10-5(수영세무서 입구)

대표전화 (051)628-1296

FAX: (051)628-2905

H·P: 011-858-7766

E-Mail: sms7766@hanmail.net